

##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성향이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s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inclin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 on child's loneliness

---

김은경(Kim, Eun Kyung)\*\* · 이진숙(Lee, Jin Suk)\*\*\*

---

본 연구는 전북 K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5-6학년 남녀 아동 588명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성향이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아동용 자기보고 설문지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척도(PACI), 아동의 대인관계성향 척도, 아동의 외로움 척도가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아동의 외로움 수준은 대체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준은 약간 개방적인 경향을 보였다. 아동의 대인관계성향은 사교-우호적 성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독립-책임감적, 동정-수용적 성향으로 나타나 대체로 긍정적인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아동의 외로움은 부적상관을 나타내었고, 대인관계성향의 하위변인들과도 대부분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성향이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일수록, 사교-우호적 성향이 낮을수록 아동의 외로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아동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가정과 사회의 관심과 지원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대인관계성향, 아동의 외로움

\* 본 논문은 2009년 전북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임.

\*\* 제1저자: 시소와그네 군산영유아통합지원센터 지역조직팀장

\*\*\* 교신저자: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학과 부교수, jslee0820@jbnu.ac.kr

## I. 서론

외로움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쯤은 쉽게 경험하게 되는 보편적인 정서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과 마스크 발달로 인한 급속한 사회환경의 변화와 핵가족화, 형제수 감소,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가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족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친밀한 상호작용이 부족해지고 아동들이 외로움에 노출되는 상황이 많아졌다.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아동들은 사회적응에 미흡하여 학교 현장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집단 따돌림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아동들은 심리적 부적응 현상 즉, 소외감, 외로움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된다. 특히 외로움은 만성적으로 쌓일 때 우울증, 신경성 식욕부진, 폭식증 등의 정서적인 문제, 심하게는 자살과 같은 문제(Moore & Schult, 1983)까지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로움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 중의 하나(Rusell, Peplau & Cutrona, 1980)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Peplau & Perlman(1982)은 외로움이 개인이 가지는 사회적 관계의 결여에서 비롯되며, 객관적인 '사회적 고립'과는 구별되는 경험으로, 불유쾌하고 고통스러운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정의하였다. 또래 괴롭힘과 같은 부정적 대인관계 경험은 아동의 외로움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불안을 느끼게 한다고 보고되었다(임지영, 1998). 황경미(1998)는 초등학교 시절에 또래에게 인기 있던 아동은 연령이 높아져도 인기 있는 아동으로 지속되고,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한 아동기를 보내게 되면 성인기에 부적응 행동, 정신병적 증상을 겪게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외로움에 관한 연구는 아동의 현재 및 미래의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로움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개인의 인성, 정서 및 행동 특성 등에 관심을 갖고 주로 개인적 특성과 관련지어 연구되었으나(Weiss, 1982), 점차 외로움이 개인적 속성 뿐 아니라 대인적·사회적 맥락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먼저, 아동의 외로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태어나 최초의 관계를 맺는 부모-자녀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초기 경험이 아동기의 대인관계 및 적응양식 등을 비롯한 성격형성 전반에 영향을 주고(Bornstein & O'Neil, 1992),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킴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부모-자녀관계와 외로움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송미현, 2007; 이성수, 2000; 이주희, 2005) 및 애착의 질(김

광웅, 정유진, 2005; 김현지, 2003; 도현심, 1998; Kerns & Stevens, 1996), 의사소통 (Larose & Boivin, 1998; Marturano, Ferrerira, & Bacarji, 2005; Jimenez, Musitu, & Ramos, 2009) 등의 요인들이 외로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왔다. 특히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인으로 서로의 감정과 생각, 태도 등을 전달하는 수단이고 서로의 상호 공통적 이해를 도우며(민하영, 1999)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자녀의 사회적 성숙과 성격형성, 자녀의 사회적 행동(김미호, 1989)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부모-자녀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신뢰롭고 애정적인 관계(김수연, 1997)와 정서적 안정감에 기여하고 또래와 원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 반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동이 정서적인 불안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심하게는 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유발시키기도 한다(심희옥, 김영미, 2001). 이처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아동의 정서와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써, 아동의 외로움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나 애착과 외로움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상당수 이루어졌으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의 외로움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아동은 학령기가 되면서 부모-자녀관계에서 확대되어 또래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회적 규칙과 또래의 압력에 민감하게 반응, 타협하며 자아중심성에서 벗어나 융통성 있는 사회중심적 사고로 발달해 나간다(Hartup, 1983). 또한, 아동의 의사결정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부모에서 또래로 점차적으로 이동하는데, 아동에게 또래집단은 함께 고민을 공유하고 나누며,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김진경, 2002), 학령기에 또래와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는 아동은 외로움을 경험하기 쉽다.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속성, 즉 사회적 기술이라 할 수 있는 '대인관계성향'은 개개인이 사람을 대할 때 보편적으로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는 성향(Heider, 1964, 안범희, 1985에서 재인용)으로서, 이러한 대인관계성향은 아동의 외로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의 외로움과 관련된 선행요인으로서 대인관계(이승진, 2007; 민하영, 1999; 정유진, 김광웅 2006), 또래 지위(송순, 2001; 정영인, 1988), 또래 수용성(도현심, 1996; 윤명주, 2003), 또래 괴롭힘(이예진, 2008; 이원규, 2006) 등이 주를 이루어왔는데, 아동의 외로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인관계성향을 고려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예: 김현지, 2003). 따라서 본 연구는 위에서 살펴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그 외에 아동 자신의 대인관계성향을 포함하여 이 변인들이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아동이 지각한 의사소통

을 평가하고자 하는데, 이는 아동이 주변 환경을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변영주, 1994), 부모의 의도보다는 아동이 그것을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정세용, 1995). 또한 아동의 대인관계성향과 외로움에 미치는 아버지, 어머니의 의사소통의 영향력을 각각 나누어 평가하여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한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의 정서발달을 위한 부모의 역할과 부모-자녀간 관계에 있어서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성향이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북도 K시에 위치한 2개의 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시기가 아동 후기에서 초기 청소년기로 들어가는 과도기로 정서적으로 민감해지고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또래집단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성향 및 외로움에 관한 자신의 경험과 전반적인 특성을 인식하고 질문지에 적절히 응답할 수 있는 시기라 판단되었다.

2009년 3월에 K시 소재 초등학교 1곳을 선정하여 방과 후 교실에 다니는 5~6학년 아동 2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 예비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문항의 내용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4월 13일~24일까지 전북 K시의 2개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5~6학년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질문지의 작성은 각 반 담임교사의 도움을 얻어 5학년(10학급), 6학년(9학급), 모두 19개 학급의 아동에게서 실시되었으며 설문작성 후 바로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총 64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612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율은 95.6%이다. 회수된 질문지 중, 문항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응답, 또는 한부모 가정으로 양부모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8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588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성별	남	302(51.4)	학년	5학년	296(50.3)
	여	286(48.6)		6학년	292(49.7)
출생 순위	첫째	241(41.0)	가정의 경제수준	상위	13(2.3)
	중간	90(15.3)		중상위	128(22.2)
	막내	223(37.9)		중위	414(71.9)
	외동	34(5.8)		중하위	19(3.3)
				하위	2(0.3)
아버지 연령	30~34세	15(2.6)	어머니 연령	30~34세	50(8.5)
	35~39세	103(17.6)		35~39세	267(45.4)
	40~44세	301(51.5)		40~44세	213(36.2)
	45~49세	128(21.9)		45~49세	44(7.5)
	50세 이상	38(6.5)		50세 이상	14(2.4)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17(3.1)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19(3.4)
	고졸	231(41.5)		고졸	272(48.7)
	전문대졸	28(5.0)		전문대졸	26(4.7)
	대졸	255(45.8)		대졸	218(39.0)
	대학원 이상	26(4.7)		대학원 이상	24(4.3)
아버지 직업	전문직	52(9.0)	어머니 직업	전문직	63(10.8)
	관리직	146(25.4)		관리직	53(9.2)
	사무직	75(13.0)		사무직	52(9.0)
	서비스직	89(15.5)		서비스 상업	111(19.3)
	기술생산직	100(17.4)		기술생산직	16(2.8)
	농어축산업	12(2.1)		농어축산업	3(0.5)
	무직	2(0.3)		무직(주부)	202(35.1)
	기타	99(17.2)		기타	76(13.2)

\*무응답에 따라 변인마다 사례 수 차이가 있음

조사대상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성별 분포는 남아가 302명으로 51.4%, 여아가 286명 48.6%로 남아가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분포는 5학년 296명(50.3%), 6학년 292명(49.7%)이며, 출생순위를 살펴보면, 첫째 241명(41.4%), 중간 90명(15.3%), 막내 223명(37.9%), 외동 34명(5.8%)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부의 연령이 30대 20.2%, 40대 73.4%, 모의 연령은 30대 53.9%, 40대 43.7%로 대부분 부모의 연령이 대부분 30~40대에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의 교육수준은 대졸 45.8%, 고졸 41.5%, 모의 교육수준은 대졸 39.0%, 고졸 48.7%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보이고 있다. 부모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관리직(25.4%), 기술생산직(17.4%), 서비스직(15.5%), 사무직(13%) 순으로 나타나며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가 35%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살펴보면, '여유 있다' 128명(22.2%), '보통이다' 414명(71.9%)으로 대부분 아동이 가정의 경제수준을 보통 이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연구도구

### 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PACI(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를 민하영(1991)이 번안하여 아동에 맞게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2개의 하위영역(개방형 10문항, 폐쇄형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따로 구분하여 응답하게 되어 있다. 부모-자녀간에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을 사용하여 서로에게 감정, 느낌, 생각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서, 개방형 의사소통과 폐쇄형 의사소통의 2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가 서로 간의 의사소통에 억압을 느끼지 않으며 자유로운 감정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폐쇄형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상호작용이 부정적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에 응답하도록 되어있고 개방형 의사소통은 점수가 높을수록 보다 기능적인 반면 폐쇄형 의사소통은 점수가 높을수록 보다 역기능적임을 의미한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전체 수준은 폐쇄형 문항을 역채점하여 합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다 개방적이고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s $\alpha$	
		부	모
개방형 의사소통	10	.90	.91
폐쇄형 의사소통	10	.77	.81
의사소통 전체	20	.89	.89

## 2) 대인관계성향 척도

대인관계성향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개인적 속성으로, 개개인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보편적으로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는 심리적 지향성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범희(1983)가 제작한 대인관계성향검사를 신만철(1993)이 초등학생에 맞게 수정한 것을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3개 하위영역(역할 성향, 사회관계성향, 표현 성향)과 7개 차원(지배-우월적 성향, 독립-책임감적 성향, 동정-수용적 성향, 사교-우호적 성향, 경쟁-공격적 성향, 과시-자기도취적 성향, 반항-불신적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5문항이다. 대인관계성향 척도의 3개 하위영역의 구성개념과 내용을 보면, '역할성향'이란 대인관계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지배-우월적, 독립-책임적 차원으로 구성된다. 사회관계성향은 그의 사회적 관계는 어떠한가를 알아보는 것으로 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 경쟁-공격적 차원으로 구성되며, 표현성향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취하는 태도는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알아보는 것으로 과시-자기도취적, 반항-불신적 차원으로 구성된다. 7개 차원은 각 차원별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각 차원의 합계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 각 차원의 점수가 높을수록 '지배-우월적 성향, 독립-책임감적 성향, 동정-수용적 성향, 사교-우호적 성향, 경쟁-공격적 성향, 과시-자기도취적 성향, 반항-불신적 성향'을 갖는 것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그 반대의 의미인 '복종-자기비하적, 의존-무책임적, 비동정적-거부적, 비사교적-비우호적, 비경쟁적-비공격적, 자기폐쇄적-자아의식적, 타협-신뢰적 성향'을 갖는 것으로 된다. 본 연구에서는 35문항 중 Cronbach's  $\alpha$ 에 의한 신뢰도 산출에서 신뢰도가 낮은 2문항을 제외한 33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대인관계성향의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7개 하위차원의 Cronbach's  $\alpha$ 는 .61~.70으로 분석되었으며, 지배-우월적, 독립-책임감적, 경쟁-공격적 차원의 신뢰도는 타 영역에 비해 다소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Cronbach's  $\alpha$ =.61~.62) 결과해석에 주의가 요청된다.

<표 3> 대인관계성향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 척도	차원	문항 수	내 용	Cronbach's <i>a</i>
역할 성향	지배- 우월적	4	영향력행사, 지시, 충고, 복종요구, 솔선적, 자기주장, 독단적, 자만, 지나친 자존감, 권위적	.61
	독립- 책임감적	5	자기판단적, 독자적 수행, 자립, 책임의식 철저, 수범적, 과업지향 자기권리 주장	.62
사회관 계성향	동정- 수용적	5	허용적, 관용적, 민감, 양자 보호적 타인의 장점존중, 성심성의, 포용력	.70
	사교- 우호적	5	개방적, 활동적, 친밀, 소속감, 밀착 낙천적, 온화, 친절, 친애적, 동조적, 협조적	.69
	경쟁- 공격적	5	간접 싫어함, 자기 싫어함 비판적, 논쟁적	.62
표현 성향	과시- 자기도취	4	자기노출적, 과정적, 전시적, 자기자랑, 홍분잘함, 지나치게 낙천적, 도취적, 즉흥적	.67
	반항- 불신적	5	불평, 불안, 권위에 도전, 배타적 반대 의심, 경계적, 왜곡, 고립적	.64

### 3) 외로움 척도

Asher와 Wheeler(1985)가 제작한 아동의 외로움 질문지(Children's Loneliness Questionnaire: CLQ)를 오현미(2000)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정서적 관계의 부족으로 초래되는 고통스러운 정서상태, 즉 개인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에서 느끼는 불만족감을 의미한다. 이 검사지는 아동의 외로움 감정, 사회적 적응이나 부적응, 또는 또래관계에서의 아동 자신의 주관적 평가에 초점을 둔 20문항과 아동의 취미나 선호하는 활동에 초점을 둔 4문항을 포함한 총 24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4개 문항은 질문에 대한 아동들의 감정표현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운 표현을 돕기 위해 첨가된 항목으로 점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동들은 각 문항이 얼마나 자신을 잘 표현하고 있는냐에 따라 1점에서 4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응답범주는 '전혀 아니다'(1점), '가끔 그렇다'(2점), '때때로 그렇다'(3점), '자주 그렇다'(4점)로 이루어졌다. 외로움 점수는 먼저 역채점 문항(6문항)의 점수를 역으로 변환한 다음 합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이 큰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는 .91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둘째,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대인관계성향, 외로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성향 및 외로움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성향이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대인관계성향, 외로움의 일반적 경향

부모-자녀 의사소통, 대인관계성향, 외로움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서 부-자녀간 의사소통의 전체 평균은 70.32점이고 범위는 24~100, 모-자녀간 의사소통은 76.01점이고 범위는 30~100으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전체점수의 평균은 중앙치보다 높게 나타나 약간 개방적인 경향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보다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아동의 외로움은 최고점이 73점인데 비해 전체평균이 30.24로 나타나 연구대상 아동의 외로움 수준은 대체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대인관계성향을 하위차원별로 비교해보면 사교-우호적 성향의 평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독립-책임감적, 동정-수용적 성향으로 나타나 대체로 긍정적인 성향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지배-우월적, 과시-도취적 성향의 점수 평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대인관계성향, 외로움의 평균(표준편차), 범위

구분	요인	M(SD)	범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부-자녀간 의사소통	70.32(13.93)	24~100(76)
	모-자녀간 의사소통	76.01(14.13)	30~100(70)
대인관계성향	지배-우월적	6.86(2.25)	4~20(16)
	독립-책임적	12.13(2.68)	5~25(20)
	동정-수용적	11.76(3.12)	5~25(20)
	사교-우호적	13.14(2.96)	5~25(20)
	경쟁-공격적	10.80(3.14)	5~25(20)
	과시-도취적	7.28(2.44)	4~20(16)
	반항-불신적	9.65(9.67)	5~25(20)
외로움		30.24(13.92)	20~73(53)

한편, 아동의 성별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변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표 5>, 모-자녀간 의사소통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2.05, p<.05$ ). 대인관계성향은 7가지 하위차원 중에서 과시-자기도취적 성향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t=-2.54, p<.05$ ), 여아가 남아보다 과시-자기도취적 성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외로움을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여아( $M=30.52$ )가 남아( $M=29.97$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대인관계성향, 외로움 차이

구분	요인	성별		<i>t-test</i>
		남아 M(SD)	여아 M(SD)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부-자녀간 의사소통	70.13(13.00)	70.52(14.87)	-.33
	모-자녀간 의사소통	74.83(13.73)	77.26(14.45)	-2.05*
대인관계성향	지배-우월적	7.00(2.42)	6.73(2.05)	1.42
	독립-책임감적	12.01(2.81)	12.20(2.55)	-.86
	동정-수용적	11.46(3.21)	11.90(3.02)	-1.74
	사교-우호적	13.00(3.07)	13.32(2.84)	-1.28
	경쟁-공격적	10.93(3.13)	10.59(3.16)	1.29
	과시-도취적	7.03(2.55)	7.54(2.29)	-2.54*
	반항-불신적	9.77(2.96)	9.46(2.76)	1.27
외로움		29.97(9.77)	30.52(9.57)	-.68

\* $p<.05$ , \*\* $p<.01$ , \*\*\* $p<.001$

## 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성향 및 외로움의 관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성향 및 외로움의 각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자녀간 의사소통은 독립-책임감적 성향( $r=.20, p<.001$ ), 동정-수용적 성향( $r=.22, p<.001$ ), 사교-우호적 성향( $r=.24, p<.001$ ), 과시-도취적 성향( $r=.16, p<.01$ )과 정적 상관, 반항-불신적 성향( $r=-.25, p<.001$ )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버지가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가 허용적이고, 관용적이며 타인을 존중하고 포용력이 높아진다고 한 방문희(1991)의 연구를 뒷받침 한다. 반항-불신적 성향은 부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자녀간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의사소통이 아동의 부정적인 대인관계성향 즉, 타인에게 공격적이고 반항하거나 불신적인 성향과의 관련성을 유추하게 한다. 모-자녀간 의사소통은 독립-책임감적 성향( $r=.20, p<.001$ ), 동정-수용적 성향( $r=.26, p<.001$ ), 사교-우호적 성향( $r=.32, p<.001$ ), 과시-도취적 성향( $r=.13, p<.01$ )과 정적 상관, 지배-우월적 성향( $r=-.10, p<.05$ ), 반항-불신적 성향( $r=-.25, p<.001$ )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의 결과에서 부-자녀간 의사소통은 지배-우월적, 경쟁-공격적 차원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자녀간 의사소통에서도  $r=-.10\sim-.12$ 의 약한 상관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 두 척도의 신뢰도가 낮았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하위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화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아동의 외로움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자녀간 의사소통( $r=-.35, p<.001$ ), 모-자녀간 의사소통( $r=-.47, p<.001$ ) 모두 외로움과 부적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성향과 아동의 외로움과의 각 하위요인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표 8>, 독립-책임감적 성향( $r=-.19, p<.001$ ), 동정-수용적 성향( $r=-.25, p<.001$ ), 사교-우호적 성향( $r=-.47, p<.001$ ), 과시-도취적 성향( $r=-.17, p<.001$ )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사교-우호적 성향은 비교적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로움과 사교-우호적 성향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반항-불신적 성향은 정적 상관( $r=.17, p<.001$ )이 나타났다.

<표 6>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성향 및 외로움간의 관계

	지배- 우월적	독립- 책임적	동정- 수용적	사교- 우호적	경쟁- 공격적	과시- 도취적	반항- 불신적
부-자녀간 의사소통	.04	.20***	.22***	.24***	-.08	.16***	-.25**
모-자녀간 의사소통	-.10**	.20***	.26***	.32***	-.12*	.13**	-.30***

\* $p < .05$ , \*\* $p < .01$ , \*\*\* $p < .001$

<표 7>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아동의 외로움의 관계

	부-자녀간 의사소통	모-자녀간 의사소통
아동의 외로움	-.35***	-.47***

\*\*\* $p < .001$

<표 8> 대인관계성향과 아동의 외로움의 관계

	지배- 우월적	독립- 책임감적	동정- 수용적	사교- 우호적	경쟁- 공격적	과시- 도취적	반항- 불신적
외로움	.05	-.19***	-.25***	-.47***	.00	-.17***	.17***

\*\*\* $p < .001$

### 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성향이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성향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회귀가정의 위반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공선성을 살펴보았다. 각 독립변수들간의 자기상관을 알아보기 위해서 공차한계와 VIF 계수를 살펴 본 결과, 공차한계는 0.1보다 크고, VIF 계수는 1.00~1.90 사이의 범위 내에 있어 오차항간의 자기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에서 1단계에서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2단계에서는 대인관계성향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아동의 외로움을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유의미한 예언변인으로 종속변인을 2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녀간 의사소통( $\beta = -.37, p < .001$ )과 부-자녀간 의사소통( $\beta$

=-.19,  $p<.001$ )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투입한 대인관계성향은 11%의 추가설명력을 가졌으며, 하위변인 중 사교-우호적 성향( $\beta=-.38$ ,  $p<.001$ )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일수록, 사교-우호적 성향이 낮을수록 아동의 외로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대인관계성향에 따른 아동의 외로움

	1단계		2단계	
	$\beta$	$t$	$\beta$	$t$
부-자녀간 의사소통	-.19	-4.20***	-.13	-3.07**
모-자녀간 의사소통	-.37	-8.48***	-.27	-6.02***
지배-우월적			.10	1.92
독립-책임감적			-.02	-.38
동정-수용적			.08	1.55
사교-우호적			-.38	-7.64***
경쟁-공격적			-.04	-.68
과시-도취적			-.04	-.74
반항-불신적			.06	1.10
전체 $R^2$	.24		.35	
$R^2$ 변화량			.11	
$F$	77.41***		29.08***	

\*\* $p<.01$ , \*\*\* $p<.001$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성향 및 아동의 외로움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성향이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대인관계성향, 외로움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수준은 부모 모두 중앙치 이상으로 나타나 대체로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의 대인관계성향은 각 하

위척도마다 점수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평균이 중간점보다 낮았으며, 외로움은 평균점수가 대부분 낮게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아가 남아보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들(김순옥, 1991; 권보연, 2000; 민혜영, 1990; 안상미, 2006)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에 비해 여아가 정서·의사표현력에 있어서 더 발달되어 있으며, 여아들이 부모, 교사 등 권위적 인물에 더 순종적(Cervantes & Callanan, 1998, Maccoby, 1990, 장영수, 2008에서 재인용)이라는 결과에서 지지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에게 정서적 개방이 더 격려되고 대인관계에서도 표현적이며, 관계지향성이 더 강조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Melson, 1989). 또한, 대인관계성향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과시-자기도취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과시적-도취적, 경쟁적-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청소년 대상 선행연구(남연희, 2008)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외로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5~6학년을 대상으로 외로움의 성차를 연구한 결과,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은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도현심(1996)의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둘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성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동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독립-책임감적, 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 과시-도취적 성향은 높고, 반항-불신적 성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남연희, 2008)에서도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 때 청소년 자녀가 보다 독립-책임감적, 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 과시-도취적 성향을 보이고 반항-불신적 성향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어머니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독립-책임감적, 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 과시-도취적 성향은 높은 반면, 지배-우월적, 반항-불신적 성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 성향을 나타내고, 모와의 의사소통유형이 폐쇄적일수록 반항-불신적 성향을 갖는다는 선행연구(남연희, 2008; 송여옥, 2002)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부모와 개방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학생들은 독립-책임감적, 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인 바람직한 대인관계성향이 높은 반면, 부모와의 대화가 원만하지 못한 학생들은 반항-불신적인 부정적인 대인관계성향이 높게 나타난다는 심혜영(1993)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즉, 아동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개방적이라고 인식할수록 긍정적인 대인관계성향이 높아지고 부정적인 성향은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아동의 외로움과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아동은 외로움을 덜 느끼며, 폐쇄적일 경우에

는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와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아동의 부정적 정서가 높다고 나타난 노옥경(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부모와 자녀간에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경우에 아동이 외로움을 덜 느끼고, 독립적이고 수용적이며 사교적인 성향과 같은 긍정적인 대인관계성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외로움과 대인관계성향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의 외로움 수준이 높은 아동일수록 대인관계성향 중에서 독립-책임감적 성향, 동정-수용적 성향, 사교-우호적 성향, 과시-도취적 성향들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사교-우호적 성향이 매우 낮았는데, 이는 김현지(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사교-우호적 성향이 낮은 아동들의 경우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더욱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반항-불신적 성향과는 외로움간에 정적상관을 보여 타인에 대한 반항과 불신경향이 높은 아동이 내적으로는 타인과 고립되어 외로움의 감정을 느끼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추론된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대인관계성향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성향 하위변인 중 사교-우호적 성향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일수록, 아동의 사교-우호적 성향이 낮을수록 아동의 외로움 수준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 폐쇄적인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간에 단절 및 좌절의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아동의 외로움 수준을 높이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성향이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부-자녀간 의사소통과 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각각 독립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버지와 자녀, 어머니와 자녀간의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각각 독립적으로 아동의 외로움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또한, 대인관계성향 중 사교-우호적 성향이 아동의 외로움 수준에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에 대한 아동의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태도가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아동 스스로 느끼는 외로움이라는 정서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결론적으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아동의 긍정적인 대인관계성향이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 개개인이 가진 사교적이고 우호적인 성향이 아동의 외로움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볼 때, 아동이 또래와 보다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성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폐쇄성이 아동의 외로움을 높이는 주요인임을 고려할 때, 부모-자녀간의 개방적이고 신

외로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 아동이 보다 자유롭게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부모와 나눌 수 있는 의사소통 환경이 마련됨으로써 자녀의 긍정적인 정서발달을 돕고 외로움의 감정을 낮출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부모들에게 긍정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녀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돕는 체계적인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 및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제한점을 지적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아동이 지각한 측면에서만 이루어졌는데,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부모가 지각한 의사소통이 함께 측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유의표집에 의해 선정된 전북 K시의 초등학교에서 한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고려한 여러 지역 초등학교 학생을 표집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인관계성향척도가 하위요인별로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의 대인관계성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척도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성향과 외로움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이들 변수 외에 다양한 관련변인들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려옥(2005).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보연(2000). 대학신입생의 대인관계 문제유형과 그들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양육태도와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200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성향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웅, 조유진, 정유진(2005).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 부정적 인지조절 능력의 성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 26(5)**, 379-389.
- 김기영(2009).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성향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호(1989).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자녀의 사회적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2008).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조절양식을 매개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1997). 가족사정 척도개발과 타당성 검증.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순옥(1991). 10대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개방성과 그 귀인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김성해, 송순(2001). 아동기 외로움 관련변인 경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63-77.
- 김주미(2006).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감과 또래관계 질에 따른 청소년의 외로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연(2009). 부모의 양육행동, 또래관계의 질 및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2006). 아동의 애착안정성 및 자아존중감과 외로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경(2002).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의사소통기술과 또래관계의 질.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지(2003).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와 아동의 외로움 및 대인관계성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연희(2008).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청소년 대인관계성향 간의 관계분석. 강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옥경(2003).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과 자녀의 대인관계기술.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현심(1996). 아동의 수줍음, 대인적응성 및 또래수용성과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33-45.
- 민하영, 유안진(1999). 학령이 아동이 자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처행동이 부모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139(9), 1-12.
- 민하영(2002). 학령기 아동의 내외통제소재 및 또래-소외 상황에서의 대처행동과 외로움. **아동학회지**, 23(3), 51-63.
- 민혜영(1990).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 도현심(1998).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1), 229-244.
- 변영주(1994).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 및 스트레스의 상호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미현(2007). 부모의 애정-적대 양육태도가 자녀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만철(1993). 아동기의 열등감 수준과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혜영(1993). 고교생의 대인관계성향과 부모-자녀 대화개방도 간의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희옥, 김영미(2001). 부모와의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 및 교내 외 활동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1(4), 159-175.
- 송여옥(2002).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에 관한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범희(1985). 대인관계 적절성과 성향검사의 타당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상미(2006).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현미(1999). 아동의 외로움과 형제 및 친구관계의 질적 특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명주(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결혼만족도와 초등학교생자녀의 또래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수(2002).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외로움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진(2007). 또래 관계 및 가족 기능과 아동 외로움 지수의 상관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예진(2008). 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와 외로움의 관계에 대한 친구관계 질 및 대처전략의 중재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규(2006).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과 대처전략 및 외로움과의 상관분석.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지영(1998).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수(2008).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자아탄력성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진, 김광웅(2006). 또래관계 및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8(2)**, 217-232.
- 정세용(1995).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 국민학생의 지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인(1988). 인기도에 따라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 및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탁정미, 이주희(2005).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7(1)**, 141-155.
- 황경미(1998). 초등학교 아동의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nes, L. H. & Olso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Bornstein, R. F. & O'Neil, R. M. (1992). Parental perception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0*.
- Bullock, J. (1993). Children's lonelines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family and peers. *Family Relations, 42*, 46-50.
- Cassidy, L. & Asher, S. R. (1992). Loneliness and peer relations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350-365.
- Cervantes, Christi A, Callanan, Maureen A. (1998). Labels and explanations in mother-child emotion talk: Age and gender differenti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1)*.

- Chipuer, H. M. (2001). Dyadic attachments and community connectedness: Links with youths' loneliness experienc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 429-444.
- Henwood, P. G. & Solano, C. H. (1994). Loneliness in young children and their parent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5*, 35-45.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 In P. H. Mu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New York: Wiley.
- Junttila, N. & Vauras, M. (2009). Loneliness among school-aged children and their parents. *Scandinavian Journal Psychology, 50*, 211-219.
- Kerns, K. A., & Stevens, A. C. (1996). Parent-child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Links to social relations and personal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3).
- Larose & Boivin. (1998). Attachment to parents, social support expectations, and socioemotional adjustment during the high school-college transition.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8*(1), 1-27.
- Lieberman, M., Doyle, A., & Markiewicz, D. (1999). Developmental patterns in security of attachment to mother and father in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Associations with peer relations. *Child Development, 70*, 202 - 213.
- Maccoby, Eleanor E. (1990). Gender as a social category. *Psychosocial Developmental psychology, 10*, 25.
- Marturano, E. M., Ferrerira, M. D. T., & Bacarji, K. M. G. (2005). An evaluation scale of family environment for identification of children at risk of school failure. *Psychological Reports, 96*(2), 307-321.
- Melson, G. F. & Fogel, A. (1987). Children's Expressions of Nurturance in Everyday Life. Biennial meetings-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ral development, 76.
- Moore, D. & Schult, N. R. (1983). Loneliness and adolescence: Correlates, attributions, and cop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 95-100.
- Peplau, L. A. & Perlman, D. (1982). Perspectives on loneliness. In L. A. Peplau, & D. Perlman, Loneliness: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1-8.

- Rusell, D. W., Peplau L. A., & Cutrona, C.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72-480.
- Jimenez, T. I., Musitu, G., & Ramos, M. J. (2009). Community involvement and victimization at school: An analysis through family, personal and social adjustment,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7, 8, 959-974.
- Vauras, M. & Junntila, N. (2007). Children's loneliness, social competence, and school success: The role of the family. *Scientific Annals of the Psychological Society of Northern Greece*, 5, 1-16.
- Weiss. R. S. (1982). Issues in the study of loneliness. In L.A. Peplau and D. Perman(Eds.). *Loneliness: A source books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71-80. New York: Wiley.

## ABSTRACT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the inclin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 on the child's loneliness. The participants were 588 children in 5th and 6th grade of the elementary school which is located in Jeonbuk. Data were collected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method. Data were analyzed by statistical techniques such as mean, frequency, percentile, t-test,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Win 12.0 program.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emale children's communication with their mother are more open than those of male children and have ostentation-narcism stronger than that of male children.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statistically in children's loneliness by sex. Second, it is indicated that the parent-child communication has negative correlation with children's loneliness and it also has close relations with sub-variables in inclin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 Third, when investigating how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inclin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 have influences on child's loneliness, they have influences on child's loneliness by the following order: social-friendly, mother-child communication, father-child communication.

**Key Words:** parent-child communication, child's loneliness,  
inclin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

---

2010. 09. 20. 투고 : 2010. 11. 29. 수정원고접수 : 2010. 12. 10. 최종게재결정